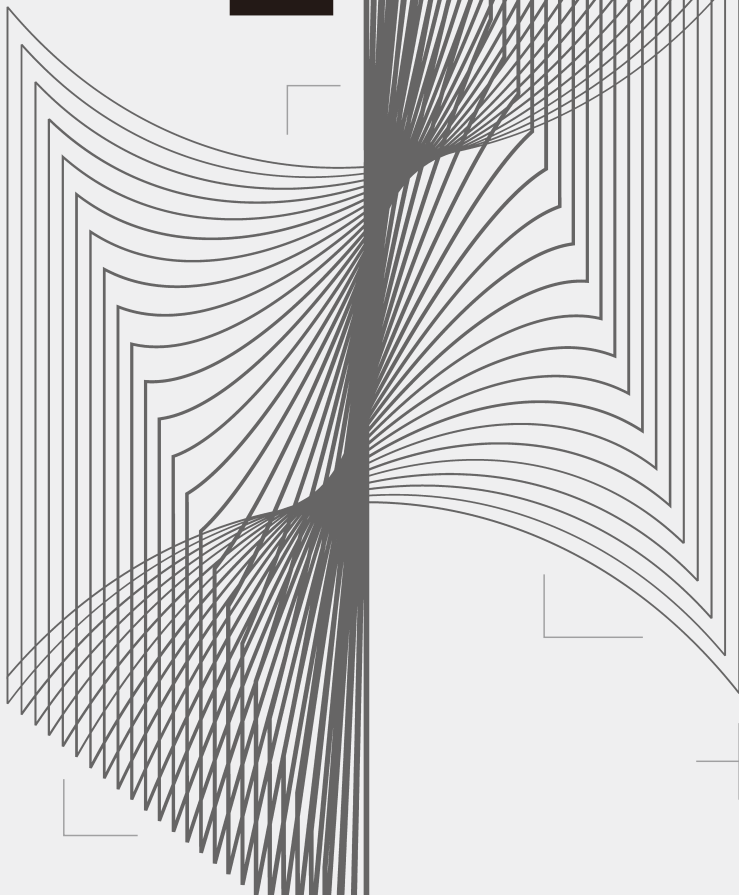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6호

(2025/여름)



제1저자. puhamsora@naver.com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조건과 민주주의

정소라(조선대학교 · 아시아언어문화학부(철학전공) · 초빙객원교수)

I. 들어가며

■ 바야흐로 ‘인공지능시대’이다. SF영화에서 보던 광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격화된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화형 인공지능’(Chat GPT)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만 해도 파격적인 놀라움과 함께 그 같은 기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이 상당했지만, 어느덧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적응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최근에는 Chat GPT의 사용자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기능이 감정케어라고 하며, 추후 AI의 심리모방기능이 더욱 발전되어 돌봄노동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변화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기술을 단순히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보기에는 물리적인 부분 이상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역과 더 나아가 인간 삶의 방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

* 이 논문은 2024년 1월 27일 충남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아렌트학회와 한국인문예술포럼의 공동학술대회 “시대 변동과 인간의 조건: 자연, 문화, 기술을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편리에 따라 선택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반 환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이 글은 1958년에 『인간의 조건』*을 쓴 아렌트(H. Arendt)의 관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 변화와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간의 조건』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1호 스푸트니크가 쏘아 올려진 직후에 출간되었다. 아렌트는 이를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지구”를 탈출하려는 인간의 시도라고 명명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려는 희망도, 자동화된 기계의 발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극심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아렌트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인간이 지구적 존재라는 조건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 발달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았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기술을 거부하며 살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도래한 인공지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많은 편리를 누리겠지만, 동시에 직면할 인간적인 가치와 기능 등의 상실과 위험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문학의 주요 과제가 될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7.

** 1957년 인간이 만든 지구태생의 한 물체가 우주로 발사됐다. 이 물체는 거기서 몇 주 동안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이 회전하는 동일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구를 공전했다. 인간이 만든 이 위성은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시간에 묶여 있고 언젠가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는 영원하게 느껴질 시간 동안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천체가 아니었다. 같은 책, 67쪽.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인간 이후의 철학’, ‘포스트휴먼’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인간의 조건’의 현재성을 새롭게 검토한다. 둘째,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인간의 ‘노동’(labor)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action) 능력의 약화를 살펴본다. 셋째, 아렌트가 말하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서로 소통하며 교섭하는 행위 능력은 곧 아렌트가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노동 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켰으며, 노동에서 주변화되고 무기력해진 인간은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배에 취약해지기 쉬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인공지능시대’라는 시대변동이 낳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한 인간의 세 활동, 즉 ‘노동’, ‘작업’(work), ‘행위’로 설명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생길 문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함으로써 여가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요, 기만이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노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변형되었지

만, 여전히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에 의해서 기만적 조작과 착취가 일어나거나 데이터 감시를 받는 등의 지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빈번해지면서,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주체 역시 인간만의 것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 작업, 행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간은 사유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행위 능력은 점점 상실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이러한 시대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는 실존에 꼭 필요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II. 아렌트의 과학기술관과 문제의식

■ 이 장에서 주지하고자 하는 바는 아렌트는 기술 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의 정치철학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언급과 관점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의 기술 개념은 하이데거(M. Heidegger)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술(technik)의 근원적 본질은 ‘탈은폐’다. 이것은

* 많은 데이터 주석 작업자(data annotators)들은 데이터 주석 및 콘텐츠 검수 센터 등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을 일일이 검사해 걸러내는 일 등을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데이터 노동’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노고 덕분이지만, 정작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노동이다. 데이터 노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 소셜미디어 앱에서 챗봇, 최신 자동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 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꼭 필요하다. 마크 그레이엄 외,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인공지능 신화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김두원 역, 흐름출판, 2025, 11~15쪽.

수공업적인 행위와 능력만이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음, 즉 ‘포이에시스’(poiësis)에 속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도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존재자들을 드러내는 방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주체적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의 고유한 의미를 파괴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이데거에게 현대 기술은 지구를 한낱 채탄장으로, 대지는 한낱, 채광장으로, 농토는 식량 공급원으로 탈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아렌트는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기술관을 이어받아 근대 기술의 개발이 인간의 노동을 탈본질화했다는 것을 비판한다. 노동은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데 기술은 노동의 의미를 은폐시키고 망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모든 것을 가능한” 그래서 인간성 말살까지도 손쉽게 가능하게 한 전체주의와 깊이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편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의 사상을 기술철학과 연관 짓는 이유는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이 더 이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해당하며, 우리의 실존적 조건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위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로는 천

*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과 천향』, 이기상 역, 서광사, 1993, 12~17쪽.

명주가 있다.* 그의 연구들은 기술철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인공지능시대’에 집중된 논의는 새롭게 필요하다. 또한 김만권은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2023)에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방점은 전체주의 시대의 ‘외로움’과 이 시대의 ‘외로움’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시대’에 ‘노동의 종말’ 테제를 ‘노동의 위기’로 진단한 이찬웅의 「노동의 위기와 유희의 정치생태학」(2023)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의 성격 변화, 노동과 유희가 뒤섞이는 현상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인류세의 문제의식 안에서 노동과 유희가 결합되는 방향이 지구친화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동이 ‘종말’한다고 보지 않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과 ‘유령 노동’ 등의 ‘고용 없는 질 낮은 노동’이 대거 늘어나는 ‘노동 유연화’ 현상을 ‘노동의 위기’로 진단한다. 플랫폼이라는 기술에 예측되는 환경의 변화는 단지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상의 많은 영역에 들어와 노동과 활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인간의 삶 의 질 자체에 영향을 끼치며, 생계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오는 위협감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사유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행위 능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인공지

* 천명주, 「기술시대의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45(2006), 149~174쪽;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윤리학회보』, 23(2010), 1~16쪽; 「생명과학기술시대,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 『인문사회』21, 14(2023), 3649~3662쪽.

** 김만권, 「한나 아렌트의 외로움,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Oughtopia』, 38(2023), 5~41쪽.

*** 이찬웅, 「노동의 위기와 유희의 정치생태학」,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6(2023), 7~28쪽.

능의 기술들은 우리가 사유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여 소통과 협력보다는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다. 이러한 영향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III. 도구가 아닌 환경으로서 인공지능

■ 인공지능과 인간을 대결 구도에 놓는 일은 대중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우려를 확산시킨다. 2016년에는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겼으며, 이듬해 세계 바둑 1인자 커제 역시 인공지능에게 세 판 연속 쓰디쓴 패배를 맛봤다. 미래학자 커즈와일(R. Kurzweil)은 2045년이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이 등장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2023년에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은 비약적으로 발전된 기술 수준을 보여주었고, 커즈와일이 예견한 특이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SF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서 학습된 ‘강인공지능’의 도발을 상상하며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에게 끼칠 위협을 고민한다. 그러나 타자화된 인공지능과의 대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경

* 레즈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장시형 · 김명남 역, 김영사, 2007.

협하면서 비대면으로 운용가능한 산업 구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워졌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검색하고, 쇼핑하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SNS를 통해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며, 유튜브를 시청한다. 그 같은 소비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의 반대쪽에서는 월 새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분류 레이블을 다는 작업자, 스마트폰의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거대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디지털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 두었다.

현재 인공지능기술은 제조, 농업, 운송, 의료, 금융, 마케팅, 성(sex)산업과 엔터테인먼트, 교육,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소매와 마케팅 분야에서는 추천인 또는 추천 시스템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표적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인 사용자 계정의 봇이 구동될 수 있다. 이러한 봇은 정치적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인간 사용자와 채팅도 가능하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수백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시장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거래를 자동화하는 데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자동 조종 장치나 자율 주행 자동차에도, 고용주의 직원 감시에도, 비디오 게임에도, 작곡이나 뉴스 기사 작성, 가짜 연설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인공지능은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

* 마크 코젤버그, 『AI윤리에 대한 모든 것』, 신상규·석기용 역, 아카넷, 2023, 91~92쪽.

공지능의 활용은 빈부격차,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군사 분야에서는 자동화된 살상 무기가 사용되며 전쟁 방식도 바뀔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와 오염의 증가를 포함한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하는 것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동시에 상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낙관적 전망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기술에 접근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독점한 자본가와 기업이 사회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과 연결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역시도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와 행위 능력 상실의 관계

■ 이 장은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노동 시장의 구조와 노동의 형태가 인간의 주체성과 행위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는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렌트가 인간의 주요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노동, 제작, 행위는 사실 그 경계를 명

* 같은 책, 92~93쪽.

확하게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며,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아렌트가 강조하는 ‘정치적 행위’는 인간의 생계와 생존 활동인 노동이 불안정하거나 완전히 종속될 때 원활하게 발현되기 힘들다. 비록 아렌트는 비판하고 있지만, 인간의 활동을 노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설득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생계와 생존이 절실하며 그것이 많은 경우에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적 행위의 목소리도 결국 공동체의 공공성이라는 이상보다는 각자가 처해 있는 노동의 처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공지능시대의 노동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에 왜곡될 수 있는 정치와 민주주의와 그 대안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에서 무기력해진 인간이 행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회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월등한 ‘강인공지능’이 유능한 비서처럼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결핍된 인간관계를 채워 주는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은 그 과정이나 노동관계의 형식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감각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은 신기술을 배치해 물류적으로 타당한 최적의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

* 최성환 외,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 인공 지능 시대의 행복론』, 사이언스북스, 2020, 95쪽.

간의 삶에 주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그 반면에 가장 큰 걱정은 리프킨(J. Rifkin)이 『노동의 종말』*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처럼 일자리 상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자동화가 진행될 때마다 있어 온 비슷한 걱정과 예측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새로운 정보 기술의 도입에서 파생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수많은 직업을 창출해 낸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시대’에도 노동은 종말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카플란(J. Kaplan) 역시 과거에 리프킨과 같은 예측을 했었지만, 노동시장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노동자들이 갖춘 기술은 고용주의 요구에 맞지 않게 될 것이므로 재교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결합한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노동환경은 노동의 질 측면에서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국면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지향하며 급격하게 성장한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통해 자동화를 완성하는 인간의 ‘유령 노동’은 질 낮은 노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민음사, 2025.

**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신동숙 역, 한스미디어, 2023, 10쪽.

*** 조정환 외,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 빨간소금, 2023, 53~54쪽, 104~105쪽. 플랫폼 노동은 일터로부터 유해 환경이나 일생활 균형 등에서 자유롭고 비공식 경제의 일이 공식 부문으로 전환된다는 ‘긍정성’이 있지만, 비표준적 계약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 허점이나 사회보험 미적용 등 ‘부정성’도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 조

터 알고리즘, 플랫폼 기술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노동 시장에 응용되어 연결되면서 안정된 일자리의 노동 대체와 위태로운 단기 노동의 출현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주류 질서는 기술은 성장과 발전의 도구요, 인공지능 자동화 효과는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짓겠지만, 세계 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노동의 위기’일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공지능시대에 노동의 과정이나 노동관계의 형식을 바꾸어 놓은 가장 큰 요인을 ‘플랫폼 자본주의’로 특정하고 ‘노동의 위기’를 진단한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가지는 위험성은 무엇일까? 백옥인은 “인공지능시대의 플랫폼 장치는 단순한 계산 기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배치하는 포섭 기계”^{*}라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지각하고 이를 다음 행동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노동을 수탈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은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다시 원료로 흡수하여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이자 시장이며 극장이자 놀이터다.^{**} 우리는 플랫폼을 익숙하게 활용하면서 ‘일’과 ‘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노동’과 ‘활동’이 잘 구분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일상화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까지 넘나든다.

건이나 사회보험 및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같은 책, 132쪽.

*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지배하는 인지자본주의의 현재』, 휴머니스트, 2023, 7~8쪽.

** 같은 책, 364~365쪽.

이 말은 곧 플랫폼이 인간 삶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선택하지 않고 기술과 기계에 대한 의존성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뜻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물론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루라는 컨셉으로 촬영이 이어지거나, 인공지능을 또 하나의 출연자로 여기면서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상품화되어 유명인들이 광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하는 간단한 질문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당장 인공지능에게 묻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취향이나 의견이 담길 법한 수많은 질문을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것을 단순히 유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지하게 된다.

플랫폼 회사는 소비자, 생산자, 공급업자 등 수많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매개자로 자신을 내세우며, 그 덕분에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직접적 관계가 플랫폼을 통해 은폐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와 부의 성격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기업으로 포섭되는 데이터와 정보, 지식은 살아 있는 일반 대중들의 활동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플랫폼이 자동으로 수취한 것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에서 빠져나간 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의 원료가 되거나 인공지능의 구성에 활용된 지식은 모든 사람의 일반지성이지만,

사회적으로 활용되거나 공동체가 공유하지는 못한다. 플랫폼은 사적 자본의 배타적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환되는 자신의 행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으며 착취당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나 피고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디지털 어셈블리라인에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은행 계정의 생산소비자로, 하루 노동을 지탱하는 유령노동자로, 말단 택배 운수 노동자로, 아마존 창고의 분류 노동자로, 페이스북 공장의 모듈엔지니어로, 인형 눈알을 달아주는 디지털 하청노동자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수동소득을 노리는 유튜버로, 그리고 검색 이용자로 생산-소비의 여러 측면에서 노동과정에 예속되는 한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플랫폼의 노예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시스템에 복종한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노동은 기계와 연결된 생산-소비과정 가운데 특정 부위에 결합될 것이고, 그렇게 접합된 장소에서 다양한 노동이 이뤄

* 백육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363쪽.

** 같은 책, 370~371쪽.

***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는 도구의 한계는 — 한 하인의 봉사를 부엌에 있는 수백 개의 기계장치와 여섯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 본질적인 문제다. 근대에서 도구와 기계의 엄청난 발전이 있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점이 예견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한 기이하고도 놀라운 증거가 있다. 아렌트, 『인간의 조건』, 203~204쪽.

질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결합된 인간노동은 과거와 달리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에서는 율타리 처진 공장이 없어지고 사회공장이라는 틀 속에서 시공간 분할이 이뤄진 다음, 플랫폼을 통해 정교하게 재결합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 서르닉(N. Surnick)은 플랫폼 노동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의 하나로 “노동의 격하”를 지적한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용자 책임 회피”와 “불안정성의 증가”에 따른 노동의 격하로 요약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이 “클라우드 양털깎기”에 불과하다고 표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소득, 근로자성, 자율성, 교섭력, 사회 보장법을 둘러싼 논쟁들은 여전히 첨예하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구와 기계는 고통과 수고를 경감시키며, 이를 통해 노동에 내재하는 절박한 필연성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구와 기계는 우리의 감각이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게 은폐하는 기능

* 소근육을 활용하는 노동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 플랫폼 노동자는 더 이상 시간에 기초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건별, 콜별, 케이스별 일거리를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은 준비 시간, 대기 시간, 쉬는 시간이 ‘모조리’ 제거된 형태의 일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다. 위험은 개인화된 형태로 전가된다. 기업 조직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왔던 보호와 보장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보험료와 콜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를 포함한 노동 과정상의 위험에 대처하는 비용 모두를 플랫폼 노동자가 부담한다. 닉 서르닉, 『플랫폼 자본주의』, 심성보 역, 킹콩북, 2020, 97~130쪽.

을 가지고 있다. 풍부하다고 해서 더 오래가는 것이 아닌 노동생산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노동분업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작업과정을 변형시킨 근대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여기에서는 작업의 본질이 변하며, 작업과정이 소비의 대상을 생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은 노동의 성격을 갖게 된다. 우리가 기계 때문에 자연적 과정의 순환보다 더 빠른 무한한 반복의 리듬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될지라도 이 과정은 자체의 반복과 무한성으로 인해 뚜렷한 노동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아렌트는 필요로서 ‘노동’이 축적물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서 ‘작업’과 구분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노동과 작업은 그 구분이 사실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노동과 작업의 결합물이며,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역시 단순함을 넘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시대에서 ‘세계’라는 무대도 인간이 발 딛고 있는 물리적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이라는 가상 세계는 더 이상 가상이 아닌 ‘실재’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 도구를 이용하기보다 도구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잦은 불평은 노동의 실제 상황에 원인이 있다. 주로 소비를 위해 생산이 이루어

* 아렌트, 『인간의 조건』, 207쪽.

지는 상황에서 호모 파베르의 활동에 매우 특징적인 수단과 목적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노동하는 동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호모 파베르가 발명한 도구들은 노동하는 동물이 일단 사용하기만 하면 그 도구적 성격을 상실한다. 노동은 삶의 필수적 부분이고 삶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삶의 과정에서 노동할 힘을 가지기 위해 살고 소비하는지, 아니면 소비의 수단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하는지의 물음처럼 수단과 목적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예가 되어 지배자의 위치에 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인간이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위해 복무할지도 모른다는 불평을 아렌트는 이미 언급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소비의 수단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할 때, 인간은 불행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들이 ‘데이터화’될 때 관리와 감시에 적합한 양식이 된다. 업무 처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다는 사실은 새롭게 구획한 우선 아래 주체와 객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수월해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감시 통제의 개인화, 일상화, 나아가 지능화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노동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은 기만적인 착취다. 그런데 착취는 인공지능이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착취는 사실 인간과 자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같은 책, 229쪽.

이러한 인공지능기술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인간의 행위 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그리고 디지털 포퓰리즘 등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며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를 유인하는 넛지(nudge) 기술 등은 플랫폼을 통해 인간을 감시하고 종속시키는 등 ‘기술 전체주의’를 가능성을 염려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 능력이 기술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기술에 잠식당하고 소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기술에 지배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V. 정치적 기술(技術)을 위하여

■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개인으로서의 ‘서사’(narrative)를 잃지 않고, 타인과 깊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병철이 『서사의 위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는 스토리에 중독되어 일상 면면을 SNS에 전시하지만, 여기에는 정작 ‘이야기할 용기와, 세상을 바꾸는 서사를 향한 용기’

* 한병철, 『서사의 위기』, 최지수 역, 다산북스, 2023, 37쪽.

가 빠져있다. 초연결 사회에서의 소통은 끊임없이 게시글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오히려 공허하다. 서사적 동물(animal narrans)인 인간은 새로운 시작의 힘을 지닌 서사를 삶을 통해 그려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소비주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온기를 나누는 소통을 통해서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고립되어 평범한 사회적 관계가 결핍된” 사람들이 즉, “정치적 외로운” 사람들이 폭력적인 국가주의에 열광하며 전체주의에 빠져들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외로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잃고 이데올로기에 현혹되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간다. 다시 말하면 이들 역시 자신의 일상적 삶과 이야기하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철학자 코켈버그(M. Coeckellbergh)는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에 아렌트로부터 인공지능과 전체주의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어 “인공지능과 전체주의의 근원, 아렌트로부터 얻은 교훈”을 썼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전체주의 국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체주의 기업을 생존하게 하며, 인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자본 축적의 새로운 논리인 “감시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은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

*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2』, 이진우 · 박미애 역, 한길사, 2006.

** 코켈버그,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AI의 정치학과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력, 동물과 환경』, 배현석 역, 생각아름, 2023, 162~178쪽.

하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발달했어도 인간은 오히려 조종되기 쉬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통제받고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고립된 존재는 아렌트가 강조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론장에서도 공허한 말을 반복하며, 세뇌되고 주입된 언어를 내뱉으며 타인과 주체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의 조건을 거세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사의 영역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다. 말을 통한 ‘인격’의 형성과 행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항상 기존의 그물망으로, **행위와 말의 직접적인 결과가 감지되는 그물망으로 귀속된다.** 행위와 말은 함께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은 결국 **새로운 자의 유일무이한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며,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고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렌트는 ‘이야기’(narrative, storytelling)가 ‘행위’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이야기는 ‘다원성’(plurality)을 가진 각각의 개성 있는 인격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공적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행위와 말은 타인의 행위 및 말의 그물망에 둘러싸여 그것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이루어진다.”** 인공

* 아렌트, 『인간의 조건』, 273쪽.

** 같은 책, 278쪽.

지능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와 ‘행위’가 살아 있다면 우리의 공적 영역은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한병철이 지적하는 것처럼 디지털화된 우리 사회에는 “사물을 감싸는 껍질, 베일만이 설득적이고 서사적”^{*}이다. 끊임없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타자와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신의 ‘이야기’는 없는 ‘내면의 공허’는 외로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접촉이 부재한 사회에서 스마트폰 속 세계는 “타자에게서 타자성을 빼앗기도 하고 타자를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기술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기술(技術)이 요구된다. 기술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학자나 기술 개발자, 그리고 전문 정치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기술이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 시민들은 모두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판적 사용자로서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력, 인간중심의 정

* 한병철, 『서사의 위기』, 65쪽.

** 같은 책, 120쪽.

*** 코켈버그,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6장 ‘정치적 기술’ 참조.

치학 등의 정치철학적 주제들과 깊이 연결해서 토론할 거리가 매우 많은 분야이다. ‘기술’이 중립적이길 바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특히 자본주의와 결탁했을 때는 그 횡포는 노골적이기까지 하다.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나오고 가속화되면서 기술에 대한 사유가 정치에 대한 사유를 자극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재한 상태로 불안과 혼란을 양산한다. 21세기의 정치철학은 기술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켈버그는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명실상부 인공지능시대이다. 미래 정치에 대한 사고는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중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또 다른 기술에 대한 민주적, 포용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인프라에 대한 논의, 실제로 필요한 기술과 최선의 사용 방법, 우리에게 필요한 소셜 미디어, 바람직한 인공지능의 역할과 위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글로벌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기구와 정치적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아렌트는 “행위가 도구화되고 정치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그것이 행위를 없애지도 못했고 행위가 중요한 인간 경험의 하나가 되는 것을 막지도 못했으며 인간사의 영역에서 행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행위의 과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

* 같은 책, 285쪽.

** 같은 책, 289~290쪽.

*** 아렌트, 『인간의 조건』, 326쪽.

사의 연약함을 자주 목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며, 중요한 인간 경험이 된다는 점을 함께 발견한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이 행위는 돌이킬 수도 없다.

불멸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사의 영역은 완전히 낮설고 심지어 다소 모순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특별한 복원력인데, 그 저항력과 지속성은 견고한 사물세계의 안정적인 지속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인간은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은 무엇이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에는 심지어 인간이 만들지 않은 지구와 자연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행위를 통해 시작된 모든 과정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여태껏 가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혼동해서 모든 개별 행위의 책임과 기원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행위의 결과를 방지할 수 없다. 이미 행한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은 모든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고 행위의 동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과 거의 동일하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사용에 있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의 실천이 가지는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다. 왜냐

* 같은 책, 328쪽.

하면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행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행위의 결과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시민의 참여와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유의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VI. 나가며

■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은 매우 혼재되어 있다.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은 미래 사회에 함께할 ‘강인공지능’의 인격과 감정, 책임,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가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유토피아적 발상과 디스토피아적 발상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진중한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에 은폐되어 있는 시스템의 횡포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자극적인 알고리즘에 편향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지구라는 인간의 근원적 조건을 탈피하려는 인간의 시도 앞에서 아렌트는 이미 많은 것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노동, 작업, 행위의 구분은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 사회를 설명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내재해 있는지를 보이는 데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렌트는 자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조건』을 썼지만, 우리는 다시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인간의 조건을 새롭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노동’과 ‘작업’을 대거 변화시켰다. 그러나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즉 정치적 영역 — 인간들이 참여하고, 말하며, 공적 삶에서 책임을 지는 영역 — 은 여전히 인간만의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리고 지배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적 권위 속에서 공공의 자유와 다양성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기술(技術)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 윤리적 책임, 그리고 참여적 관계에 뿌리내린 실천이어야 한다. 아렌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단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김만권, 『외로움의 습격』, 혜다, 2023.
- ◆ _____,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Oughtopia』, 38(2023), 5~41쪽.
- ◆ 닉 서르니, 『플랫폼 자본주의』, 심정보 역, 킹콩북, 2020.
- ◆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과 천향』, 이기상 역, 서광사, 1993.
- ◆ 마크 그레이엄 외,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인공지능 신화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김두완 역, 흐름출판, 2025.
- ◆ 마크 코켈버그, 『AI윤리에 대한 모든 것』, 신상규·석기용 역, 아카넷, 2023.
- ◆ _____,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AI의 정치학과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력, 동물과 환경』, 배현석 역, 생각이음, 2023.
- ◆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지배하는 인지자본주의의 현재』,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3.
- ◆ 시노하라 마사타케, 『인간 이후의 철학』, 최승현 역, 이비, 2023.
- ◆ _____, 『인류세의 철학: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조성환 외 역, 모시는사람들, 2022.
- ◆ 이국배, 「한나 아렌트와 냉전의 과학: 『인간의 조건』의 재조명」, 『사회와 철학』, 48(2024), 115~138쪽.
- ◆ 이찬웅, 「노동의 위기와 유희의 정치생태학」,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6(2023), 7~28쪽.

- ◆ 장진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문제들」, 『인문과학연구』, 42(2020), 161~193쪽.
- ◆ 제라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민음사, 2005.
- ◆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신동숙 역, 한스미디어, 2023.
- ◆ 조성환 외,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 빨간소금, 2023.
- ◆ 천명주, 「기술시대의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45(2006), 319~344쪽.
- ◆ _____, 「생명과학기술시대,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 『인문사회21』, 14(2023), 3649~3662쪽.
- ◆ _____,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 『인문사회21』, 13(2022), 2405~2418쪽.
- ◆ _____,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 (2010), 1~16쪽.
- ◆ 최성환 외,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 인공지능시대의 행복론』, 사이언스북스, 2020.
-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9.
- ◆ _____, 『전체주의의 기원1-2』, 이진우·박미애 역, 한길사, 2006.
- ◆ 한병철, 『서사의 위기』, 최지수 역, 다산북스, 2023.
- ◆ 허유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디지털 윤리학: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윤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42(2023), 273~300쪽.



■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인간 이후의 철학’, ‘포스트휴먼’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인간의 조건’의 현재성을 새롭게 검토한다. 둘째, ‘플랫폼 자본주의’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구조가 인간의 ‘노동’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 능력의 약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셋째,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아렌트는 자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조건』을 썼지만, 우리는 다시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인간의 조건을 새롭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노동’과 ‘작업’을 대거 변화시켰다. 그러나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즉 정치적 영역 — 인간들이 참여하고, 말하며, 공적 삶에서 책임을 지는 영역 — 은 여전히 인간만의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리고 지배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적 권위 속에서 공공의 자유와 다양성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기술(技術)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 윤리적 책임, 그리고 참여적 관계에 뿌리내린 실천이어야 한다. 아렌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단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아렌트, 인공지능시대, 민주주의, 인간의 조건, 정치적 기술(技術), 이야기, 행위



The Human Condition and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eong, Sora

(The Chosun University of Korea · Philosophy · Visiting Professor)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First, it seeks to reassess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Human Condition in the context of current debates surrounding “philosophy after the human” and the discourse on the “posthuman,” which have gained prominence alongside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econd, it examin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the convergence of AI technologies and platform capitalism, focusing on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human capacity for “action” — a core element of the human condition that Arendt emphasized. Third, it explores potential pathways to safeguard democracy in an era in which it faces increasing threats.

While Hannah Arendt wrote *The Human Condition* in the context of her historical moment,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examine the human condi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in an era increasingly shaped by intelligent machines, and how might democracy be preserved under these condi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rofoundly transformed the spheres of “labor” and “work.” However, the realm of “action”—that is, the political domain in which individuals appear before others, speak, and assume responsibility in public life—remains distinctly and fundamentally human.

Nevertheless, the rise of AI, particularly in mediating communication, decision-making, and governance, has been acknowledged as posing novel challenges to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ese challenges raise a pressing question: how can we safeguard public freedom and plurality in an age dominated by algorithmic authority? At this critical juncture, a renewed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techniques is necessary—one not centered on control or efficiency but grounded in human judgment, ethical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ory engagement. Viewed through the lens of Arendt’s thought, the future of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ends not solely on how technology is utilized but more crucially on how human beings act politically within

a shared and plural world.

◇◇◇◇◇◇◇◇◇◇◇◇

Keywords: Arendt,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The Human Condition, political techniques, narrative, action

- ◎ 투고 접수 2025. 07. 14.
- ◎ 심사 완료 2025. 08. 18.
- ◎ 게재 결정 2025. 08. 18.